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35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2월 12일 (음력 11월 6일) 수요일

## 광주 아파트 평균 분양가 3.3㎡당 1078만원

2018년 광주지역에 공급된 민간분양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07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전남 부동산포털 시장정보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광주에서는 9개 단지 5320세대의 민간분양 아파트가 공급됐다.

이들 아파트의 분양가는 기준층 기준 3.3㎡당 평균 1078만원(발코니 확장비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분양가였던 3.3㎡당 1062만원보다 약 16만원 높아진 값이다. 발

작년 비 16만원 ↑ ...상무 양우내안에 1245만원 최고가

지석동 일진스위트포레 888만원 '최저' 실수요자 눈길

코너 확장비를 뺀 금액은 3.3㎡당 1044원이 된다.

광주 아파트 분양가는 최고 3.3㎡당 1245만원에서부터 최저 888만원까지 단지에 따라 350여만원 차이가 났다.

올해 광주에서 가장 비싼값에 분양된 단

지는 상무 양우내안이었다. 총 353세대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94세대에 대해 일반분양을 진행했고 3.3㎡당 평균 분양가는 1245만원(발코니 확장비 포함)이었다.

두 번째로 분양가가 비싼 단지는 지난달

공급된 광산 상용에가 플래티넘으로 3.3㎡당 평균 1206만원(발코니 확장비 포함)이다. 이 밖에도 주월 양우내안의 일반 분양가가 3.3㎡당 1200만원(발코니 확장비 포함), 금남로 대광로제비앙이 3.3㎡당 1174만원(발코니 확장비 포함) 등으로 상위층 차지했다.

반면 남구 지석동에 공급된 일진스위트포레는 3.3㎡당 887만원(발코니 확장비 포함)의 가격에 분양돼 실수요자의 눈길을 끌었다.

신봉우 기자

### 광주 '대인예술시장'

#### '한국관광의 별' 선정

관광 연계시설 시장 부문 유일



전주 한옥마을에 쏟아지는 눈

차가워진 겨울 날씨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린 11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옥마을에서 관광객들이 눈을 맞으며 길을 지나고 있다.

광주 대인예술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18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됐다.

한국관광의 별은 관광 발전에 기여한 지역의 우수 콘텐츠를 소개하고,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상식은 11일 오후 인천 경원재오피스에서 호텔에서 열렸다.

대인예술시장은 4개 분야 10개 부문 중 관광 연계시설 시장 부문에 선정됐으며, 광주에서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인예술시장은 2008년 광주비엔날레 북덕방 프로젝트를 계기로 비어있는 시장공간에 예술가들이 들어오면서 상인과 젊은 예술인들의 화합 속에 시작됐다.

매주 토요일 아시안에서는 예술작품 판매, 거리 공연, 시민 실러들의 난장이 펼쳐지고 유행년 예술극장에서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김용승 시 관광진흥과장은 "대인예술시장은 전국 대표 예술시장 관광명소로 인정받아 시장부에서 유일하게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됐다"면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지역 축제 연계 등 문화관광 콘텐츠 융합을 통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낙하산?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최근 잇단 열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1일 코레일 사장직에서 사퇴했다. 3선 의원 출신의 오 사장은 지난 2월 6일 취임해 10개월여간 코레일 사장으로 일해 왔다. 오 사장은 취임 직후 해고자 900여명 전원을 복직시키고, 10여년간 해고상태로 있었던 KTX 여승무원들의 정규직제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등 노사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서울역에서 발생한 KTX 열차와 굴착기 충돌사고를 시작으로 지난 8일 강릉선 KTX 열차 탈선사고까지 3주간 무려 12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오 사장은 2003년 제16대 국회 전국구 의원직을 승계한 뒤 17대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 김현미 교통부장관 등 관련 인사들의 속해를 상심해 본다.

조인호 기자 · 자료 사진 = 뉴스시스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납니다

오영식



하마터면 나가지...

김현미



낙하산의 한 계가 그거야

김성태

### 담양군 남면 주민 72% "가사문화면 변경 찬성"

한국 가사문화의 보고(寶庫)인 전남 담양군 남면을 '가사문화면(面)'으로 변경하는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은 11일 "방위에 기초한 일제시 지명인 '남면'을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가사문화면'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사흘 간 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만19세 이상 남면 주민 772명 대상으로 명칭개명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9명(72.4%)이 찬성, 201명(24%)이 반

대했고 무효는 12명(1.6%)으로 집계됐다.

명칭 변경 추진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일 명칭 변경 건의서를 군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군은 명칭 변경 건의서가 접수되면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관련 근거에 따라 행정공부, 표지판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앞으로 가사문화면 발전계획 수립을 검토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최형식 군수는 "가사문화면 명칭 변경은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면의 가치가 담양의 브랜드 못잖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정법택 명칭 변경 추진위원장은 "남면 명칭을 사용하는 자치단체가 전국에 15개나 있다"며 "가사문화면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은 물론 관광객 증가를 통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면은 면적 43㎢에 인구수 1368명(899가구)으로, 담양 13개 읍·면 가운데 인구수가 가장 적지만 소쇄원과 식영정, 환벽당 등 가사문화 유산과 명승 기념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KFS 한국농어촌공사**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농지연금사업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매매·임대차·매입비축·임대수탁
  - 매매·임대를 통한 영농규모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임대
  -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 받아 임대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환매 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연금사업**  
·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중도인출 가능)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 영농 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 임대 시 매월 보조금을 지급(75세까지)

독특한 농지관리 전문가 농지은행 | 든든한 노후생활 도우미 농지연금 | 문의 전화 1577-7770